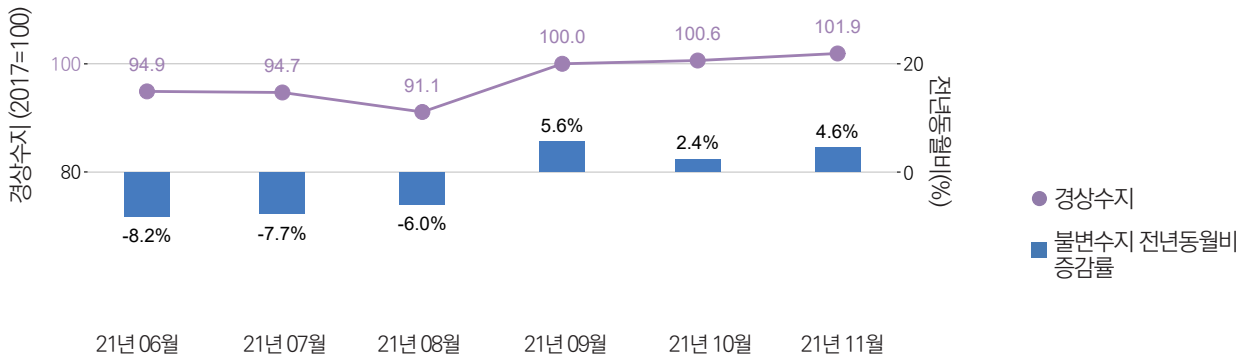
동북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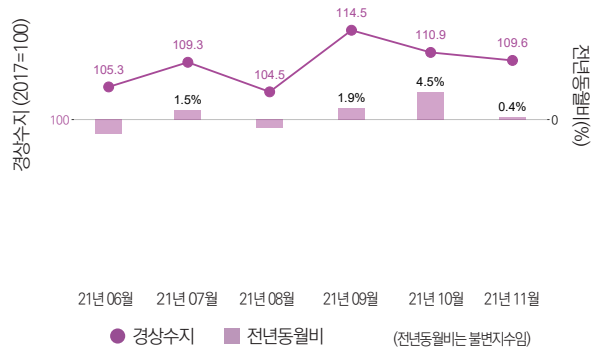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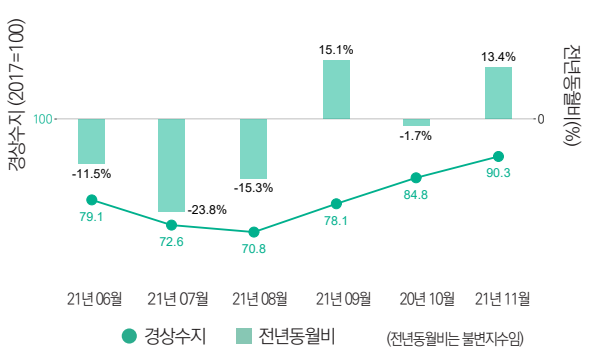
- **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4.6% 상승. 단, 상대적인 소매업 부진으로 인해 동북권 소비경기는 3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부진**
  - 전년동월대비 +4.6% = 소매업의 기여도 +0.3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4.3%p
   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    ※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- **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0.4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13.4% 상승**
  - 동북권은 무점포소매(10.2%), 기타상품(8.1%), 음식료품(6.5%), 문화·오락·여가(5.5%), 의복·섬유·신발(4.2%) 등의 대부분 소매업 세부 업종이 상승했으나 소매업 경기지수 오름폭은 (전월보다) 둔화(10월, 4.5% ⇨ 11월, 0.4%). 또한 전월 상승했던 기타가정용품(10월, 3.3% ⇨ 11월, -5.6%)과 가전제품·정보통신(10월, 0.4% ⇨ 11월, -0.3%) 등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춤한 모습
    · 11월 동북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, 기타상품, 음식료품, 문화·오락·여가, 의복·섬유·신발 순으로 소비증가
    · 반면 연료, 종합소매, 기타가정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  - 동북권은 전월 부진했던 음식점이 상승으로 반등(10월, -3.4% ⇨ 11월, 10.7%)하고, 주점·커피전문점이 큰 폭으로 상승(10월, 2.1% ⇨ 11월, 30.1%) 등 11월 세부 업종이 모두 상승하면서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경기지수도 반등(10월, -1.7% ⇨ 11월, 13.4%). 단, 숙박업 오름폭은 다소 둔화(10월, 8.2% ⇨ 11월, 2.0%)
    · 11월 동북권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, 숙박 등의 세부 업종 순으로 소비증가

| 동북권 소비경기지수 |



|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|



| 동북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|